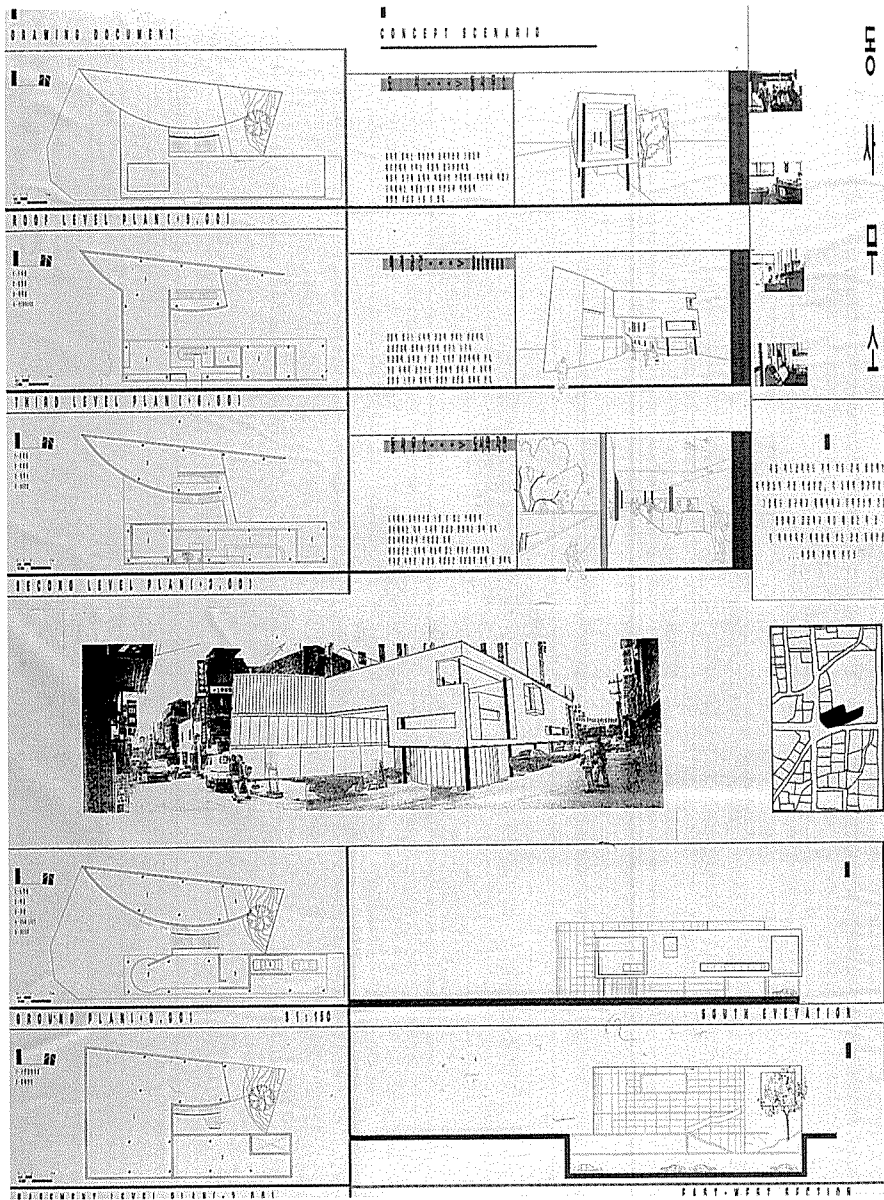


동사무소

한선정 / 서울대 건축학과
Designed by Han Seon-Cheong



도시 사무소

서울 어느곳이라도 거의 모두 같다.
지역활동의 가장 핵심 부분, 각 동네의 입구부
분에 위치하고 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이고 무미건조한 건
물들.
침침하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이곳.
꼭 와야하지만 마치 못해 오는 곳인 동사무소
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.

도시 → 동사무소

대지의 위치는 대부분의 동사무소가 그렇듯이
큰 대로변에서 보이는 마을의 입구부분이다.
마을의 입구에 들어서면 Frame이 지면에서
떠 있고 도시에서는 이것을 통해 주민들과 직
원들의 활발한 모습을 느낄 수 있다.

매개공간 → Between

건물의 입구는 도시와 건물이 만나는 부분이다.
공공 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입구는 누구나
부담없이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어야
한다. 건물 사이의 공간으로 진입하면 멀리서
본 나무의 음영을 느끼고 내부의 개방된 공간
을 접하게 된다.

동사무소 → 도시의 자연

도시에서 동사무소를 느낄 수 있는 Frame이
내부에서는 다시 도시의 전경을 한정하는 틀이
된다. 건물 사이 공간과 Frame을 통해 내부
공간은 나무와 하늘이 있는 외부로 확장된다.
작지만 시원한 공간을 사람들은 기분 좋게 찾아
올 것이다.

